홍준표 "새만금 사업 클레임 안 건다"

"'퍼주기 복지'로 SOC 투자 못할 것… 민간 투자 방식으로 홍콩처럼 추진하는 것 검토"

지난 31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전북도청을 찾아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31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를 만났다.

만남의 장에서 주요 관심사는 새만금에 관한 사업이었다.

홍준표 대표는 송 지사의 올 새만금 사업비를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대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복지에 편중돼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며, "정부의 결정에 대해 클레임을 걸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홍 대표는 새만금사업에 대해 "새만금 특별법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150만의 자족도시로 홍콩처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매년 찔끔찔끔 받는 정부예산으로는 50년 가도 안된다"며,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새만금 개발방식을 홍콩처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정부가 '퍼주기 복지'로 방향을 잡아서 5년간 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것"이라며 "국가성장동력산업이나 SOC 투자는 못 하고 나중에 남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도 SOC예산은 확보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복지라는 것은 한번 줘버리면 절대 거둘 수 없다"며, "국가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가성장동력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해야하는데, 갈라먹자는 것, 갈라먹고 보자. 방향을 저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SOC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토로했다.

송 지사는 2023세계잼버리대회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홍 대표에게 주문했다.

홍 대표와 동석한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세계잼버리를 유치해서 2023년에는 5만명의 손님들이 오는 큰 행사이므로 새만금의 여러 가지 SOC 투자를 속히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갖췄다"며,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 유치 확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과기혁신본부장에 임대식 KAIST 교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대식(52·사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박기영 전 본부장의 자진사퇴 후 20일 만에 이뤄진 후임 인선이다.

문 대통령은 또 차관급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염한웅(51)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 백경희(61)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같은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임 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영일고등학교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생화학과 분자유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임 본부장은 현재 KAIST 생명과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KAIST 내 히포(Hippo) 세포분열 분화창의연구단장을 맡고 있고,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박 대변인은 임 본부장에 대해 "암 억제 등 생명과학기술 권위자로서 뛰어난 역량과 관리역량을 겸비해 과학기술분야 변화에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서울 출신의 염한웅 부의장은 서라벌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거쳐 포항공대에서 물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도호쿠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 대변인은 "염 부의장은 우리나라 기초과학분야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물리학자로 노벨상에 근접한 과학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며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로 과학기술정책 기조와 혁신과제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통령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경희 위원장은 숙명여고를 거쳐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 식물신호네트워크연구센터장과 한국 식물학회 및 한국식물병리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원세훈 부부 갑질 박찬주 보다 더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부부가 공관병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부부보다 더한 갑질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적폐청산TF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 전 원장 부인, 혹은 부부의 갑질은 (박찬주 부부의) 공관병 갑질보다 더 했다는 소문이 내부에서 돈다'는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 "아유, 그럼요, 소문이 아닌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관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마 부부가 쓰는 냉장고에서 물을 마셨나 보다. 그랬더니 그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웠다"고 폭로했다.

또 "보수 공사하는 현직 직원에게 이번에도 공사 잘못하면 남편한테 얘기해서 인사 조치시키겠다, 잘라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텃밭도 잘 가꿔라 하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급 간부가 직접 호미를 들었다는 얘기도 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국방부, 공관병 제도 폐지… 10월까지 전환배치

정부, 국내외 57건 갑질사례 적발…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신고 · 상담 창구 개설

최근 갑질논란을 일으킨 군 공관병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배치하고,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인력 59명은 즉각 철수키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31일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같이 말하며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 하겠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한 달 동안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 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까지 총 2972명에 대한 피해점검을 실시했다. 해외 근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 일반 행정직원 등 3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또 국방부, 외교부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해 추가 보완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사례가 접수·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관병 등 사적공간의 불합리한 인력운영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 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또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도 전원 철수조치하고,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되었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 346명도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 감사관실내에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해 갑질 행태에 대한 상시접수 및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등 의무 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고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12월께 신설해 운영하는 한편, 각 부처는 유형별 적발사례 및 갑질 대처 방안을 재외기관에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진급하는 장군과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도 실시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갑질문제도 예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신고 및 상담 창구를 9월 개설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10월에 신설키로 했다.

/뉴시스

박형창 국민의당 도당 정책기획특별위원장 중앙당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은상' 수상

박형창 도당 정책기획특별위원장이 중앙당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2위에 해당하는 은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국민의당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8.27 전당대회를 맞아 당을 혁신하는 아이디어를 얻고자 전 당원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전북도당 특별위원장인 박형창 박사는 이번 공모전에 참가해 도당 예선을 통과하고 4개 권역(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중 호남권 대표로 선발되어 본선 심사에서 2등이 확정됐다.

이에 박 위원장은 내달 1일 중앙당에서 열릴 시상식에 참가해 표창장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당 혁신안은 ▲당원참여 당무 의사결정 ▲디지털정당화 추진 ▲중앙당 정책 수렴 ▲지방분권 정책수렴 ▲당원 교육시스템 정착 ▲당 홍보체계 혁신 ▲시·도당 지역위원장 평당원 선출 ▲숙의배심원 경선 의무화 등 8개다.

박형창 특별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정당중심에서 당원중심으로 변모해야 한다. 혁신으로 당을 쇄신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펴야만 한다는 심정으로 혁신안을 만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